

시간권력을 쥔 무능력자 화폐권력으로 바꾸어 쓰다. 그래서 능력의 더블을 수행한다.

‘무능력의 천민집단 여성’이라는 제목의 이 경씨 글에서는 백수 혹은 무능력자가 능력의 ‘더블’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한량이라고 부르며 한심해 하고 무능력자로 오랜 동안 구분해왔기 때문에 이 경씨의 말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하여 필자는 시간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시간권력을 쥔 자의 한명으로서 개인적인 예시를 통하여 ‘시간권력을 화폐권력으로 바꾸어 쓰는, 그래서 능력의 더블을 수행하는’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이 상황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지만 들여다보는 것 만으로라도 능력의 더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육남매의 막내아들의 막내딸이라는 서열에 있다.

올해로 아버지가 60세가 되셨으니 위로 있는 큰아버지 4분은 모두 은퇴하셨거나 취미삼아 회사에 나가거나 하는 노년의 남성들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 그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회사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6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능력자로 대우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말년에 회사생활을 그만 두게 되면서 식구들은 돈을 벌어드주던 능력자가 돈을 벌어드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더하여 순간 떨어져 버렸다. 게다가 식구들은 그동안 가장이 우리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양갓음을 해대기 시작한다. 혹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거나 유학이나 일 등을 이유로 아버지를 돌보지도 말 한마디 시켜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심심하고 무료하고 서글프다. 능력자에서 무능력자로 떨어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즈음에 막내아들의 막내딸은, 그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화창한 봄날 파스텔 톤의 스카프를 필력이며 그들을 집밖으로 불러내 문화생활을 향유해 주기 시작한다. 그들과의 데이트 코스는 각자의 경제적 사정과 취미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와 시사용어에 관심이 많은 큰아버지는 취미삼아 뉴스위크지에 간간이 기사를 쓰는 분으로 그분의 회사 구내식당에 찾아가 2,500원짜리 점심을 함께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그가 질문해대는 신문에 나오는 용어들을 또렷한 발음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등산을 좋아하는 큰아버지와는 주말 오전에 등산을 약속한다. 산을 오르며 그의 젊은 시절 무용담을 듣는다. 잔뜩 오버되어있는 그의 수다에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칭찬을 해보기도 한다. 음악을 좋아하는 큰아버지와는 이른 저녁에 만나 압구정의 클래식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공연을 보러간다. 공연 후에는 와인 bar나 커피 집에서 케익을 먹는다. 이로써 나는 그들을 만나 그들의 돈으로 운동도 하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본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돈을 때로는 선물이나 책을 받거나 그림을 판다.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고맙다는 의미로 내게 용돈을 보내주기도 한다. 나는 20대의 나이로 60대의 생활수준을 누리며 그의 가족들이 시간 없어 해결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 많은 가족들의 칭찬꺼리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화두에 오르는 나의 이야기는 외부 즉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해질 때는 효심이라는 개념을 빌어 설명되어진다. (요즘아이가, 그것도 한창나이에 노인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비생산적이어서 거짓말 같은 경우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족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효의 개념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봉사’아니냐는 농담도 한다.) 혹자는 내 행동이 매우 헌신적이며 희생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데이트를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의 경우다. 나의 경우는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 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

바이트의 개념인데다가 감정적으로 즐겁고 가족들의 칭찬을 불러일으켜 더욱 유익하다. 게다가 나는 어려서부터 잘 그래왔고, 내버려 두어도 데이트는 했을 일이기 때문인데 그의 가족들이 시간권력의 노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즉 능력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화폐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 건당 얼마 혹은 시간당 얼마라는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모호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능력이 죽었다 깨어나도 해내지 못할 일을 나는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쥔 시간권력을 십분 활용하여 화폐권력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다. 그리고 큰아버지들에게는 나와서 데이트가 화폐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내 능력이라 함은 돈도 학력도 커리어와도 견줄 수 없는 더블짜리 능력이다.